광주, 코로나 확진자 43일 만에 '최다'

지난달 8일 보험사 콜센터 관련 33명 이후 최대 확진자 쏟아져
민주당 담양사무소 이어 광주 어린이집 집단 감염, n차 현실화
학교·학원 밀집지역에서 대거 확진, 인근 주민·학부모 등 긴장

한동안 잠잠하던 광주지역 코로나19가 방심을 틈타 다시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

활동력있는 정당인들에 이어 유흥주점, 어린이집 원내 집단 감염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첫 확진자 이후 누적 검사인원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1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날 17명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현재 6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이틀새 최소 23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지난달 8일 보험사 콜센터 해제전검사 등을 통해 33명이 무더기 확진된 이후 43일 만에 최다 확진이다.

3월11일부터 한 달 동안 54명이던 지역 내 감염이 이후 10주일(11~20일) 사이 82명이나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광주 28명을 비롯해 전남 16명, 전북 2명, 서울 1명 등 1주일새 47명에 이른 가운데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과 광산구 중국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어 누적 50명은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날 광주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원생과 교사 등 10명 가까운 인원이 원내 감염돼 가족과 지인 등으로의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광주 2312번)가 인근 대형 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심층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 교사는 지난 18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했고, 같은 시간대 교회 방문 교인은 2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교회 교인이 30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긴급 현장위험도 평가를 마친 방역 당국은 교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교인 상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중이다.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중인 인원만 1100여 명에 달해 추가 확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어린이집 소재지가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릴 만큼 학원가 밀집지역이어서 학교는 물론 학원가에도 코로나19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해당 교회내 예배 참석 규모, 교회 내 소모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염 경위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으면서 지난해 2월 초 첫 확진자 발생 후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검사인원은 93만9040여 명으로, 1년2개월 여만에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9일 광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을 '또 다시 찾아든 위기'라고 규정한 뒤 "개인의 이기주의, 일탈행위로 공동체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긴장감을 갖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모임 자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 157건…19건 수사의뢰

2018~2020년 탈세 의심 등 100건 국세청 통보
실거래 위반 13건 과태료 부과, 행정계도 25건

광주지역에서 최근 3년 사이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150여 건이 당국에 적발돼 이 중 30여 건이 경찰에 수사의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는 21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올해 1~3월 실거래된 부동산 매매 사례 720건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2095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거래 의심 정황 15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2020년 부동산 거래 의심정황이 있는 720건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이다.

미성년자 주택 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 원 초과 주택 취득 200건,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58건, 보증금 승계나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등으로, 시는 거래계약서, 자금 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받았다.

전체 적발건수 중 40%가 광산구에 몰려 있었고, 다음으로 서구 35건, 북구 24건, 남구 23건, 동구 12건 순이다.

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 불법 명의신탁 등은 19건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3건, 명의신탁 5건, 공급질서 교란 1건, 중개 수수료 초과 9건 등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양도세나 증여세 탈세 의심은 모두 100건으로, 저가거래 4건과 특수관계인 등 편법 증여 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 의심 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13건으로, 지연신고 3건, 저가신고 3건, 부동산 계약일 허위 신고 3건, 중개인 허위신고 5건에 달했다. 이들 사례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밀조사 기간 증여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점검 결과, 매도자 A씨와 매수자 B씨는 가족간 거래로, 매도자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의 대금을 매수자가 납부하고,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한 의심정황 등이 적발됐다.

또 매도자 C씨와 매수자 D씨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전체를 매수자의 특수관계인 C씨의 자금으로 거래해 실질적인 소유자는 C씨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매수자 거래대금이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거래가 이뤄진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매도자 D씨와 매수자 E씨는 가족관계로, 실질적인 금전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14일 오후 관내 전통시장 및 진입 곤란지역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소방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차량 6대, 인원 20명이 참여했으며, 소화전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긴급 출동 훈련 ▲전통시장 등 좁은 길 한쪽 주차하기 홍보 및 소방차 퍼레이드 ▲전통시장 점포 내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고, 화재안전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최정식 동부소방서장은 "각종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특히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훈련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윤희 기자

완도해경,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5월 2일까지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행락철 급증하는 수상레저활동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며, △수상레저활동자 대상 계도·홍보 △주요 출입항지·활동지 순찰 강화 △육·해상 정보교환과 합동단속 실시이며, 안전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활용도 높고 접근 용이한 수상레저 안전가이드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추진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홍보에 힘쓰고 있다.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 "최근 3년간 현황 분석을 통해 4~5월 경 수상레저활동 단속과 사고 발생건수가 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봄철은 안개가 자주 끼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영암소방,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준수 강조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건축 공사장 화재와 폭발사고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준수를 강조하였다.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의 원인은 화재 취급 현장 감독 소홀과 가연물 제거 조치 미이행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그 와중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부적절하거나 미비치 되어 화재 피해가 확산된 경우도 있었다.

영암소방서는 이를 대비하고자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방서장 등 간부공무원 화재안전컨설팅과 소방특별조사, 안전문자 발송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담양소방, 코로나19지역접종센터 소방력 지원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5일부터 백신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에 소방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소방서는 75세 이상(고령자) 일반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백신접종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접종센터로 지정된 담양문화회관(담양군), 곡성문화체육관(곡성군)에 각각 인원 3명(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장비 1대(구급차 1대)를 배치했다.

접종센터에 배치된 직원들은 담양·곡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과 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를 신속하게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더불어 관할 보건소 지원 요청에 따라 접종 지원까지, 탄력적으로 임무수행 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